



이홍균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교수  
대한피임학회 회장

전에는 우리에게 생소했던 가족계획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였다. 1960년 당시 우리 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3%에 달하고 출산율은 6.0으로 굉장히 높아 그대로 유지된다면 약 20년 내에 우리 나라의 인구는 두배로 증가할 지경이었다. 따라서 웬만한 경제 성장으로는 국민이 먹고살기 힘들어 국가 발전이 힘들겠다고 판단한 정부는 본격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가족계획이란 부부가 자기네 형편에 맞는 원하는 수의 자녀를 계획적으로 출산하여 부담없이 자녀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삶의 질이 높은 가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피임이다.

## 가족계획과 피임은 같은 말인가

가족계획이라 하면 피임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틀린 말이다. 훌륭한 가족계획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적당한 피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춘기 때부터 폐경기까지 가임기 여성은 출산을 하지 않으려면 피임을 해야 한다. 우리 나라도 비슷하지만 미국의 예를 보면 모든 출산 중 원하지 않았던 출산이 55%나 된다. 원하지 않았던 임신은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은 25세 이하에서 제일 많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서는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한다. 실제로 피임 실패율이나 피임을 시행하지 않는 층은 25세 이하에서 가장 높다. 통계를 보면 이들 중 피임을 하지 않는 비율은 1988년에는 13%이고 1993년에는 19%에 이른다. 이 빈

도는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하지 않는 출산과 인공임신중절로 인해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맞는 적당한 피임을 꼭 시행하도록 해야한다.

건강한 부부생활, 계획된 분만을 도모하며 훌륭한 가족계획을 시행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남녀의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피임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피임약제, 피임기구 등이 1960년대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방법이 많다. 또한, 피임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에서 "피임"으로만 검색하여도 필자가 속해 있는 피임연구회 등에 접속하여 문의할 수도 있다.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되어 인공임신중절을 하거나 축복받지 못한 출산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준비없이 성관계를 하다가 좋고 편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사후 응급피임만을 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피임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지금은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피임에 참여하여 성공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등 인구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피임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조차 가족계획(피임)에 대한 관심이 줄고 지원도 줄어드는데 가족계획이 단순히 인구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피임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PPFK

